

2015년 3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3월의 재난발생 현황분석

- 자연재난 | 대설·강풍·풍랑 및 황사 피해현황 분석
- 사회재난 | 화재·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피해현황 분석
- 소방활동 | 화재분석 및 구조구급 통계분석
- 해경활동 | 해양주권 수호 활동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사고

- 인천 영종대교 교통사고
- 서울 동작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과거 3월 발생 주요 재난사례

- 2004. 3. 4~3. 5 대설피해
- 보령화력 발전소 5호기 보수공사 중 비계붕괴
- 목포 진도 근해 대광호 전복사고 발생

재난관리 정보마당

- 대설 대비 행동요령
- 강풍 대비 행동요령
- 풍랑 대비 행동요령
- 화재 대비 안전행동요령
-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3월 재난안전 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요약

◆ 3월은 이상기후에 의한 대설, 강풍·풍랑 및 황사의 피해가 우려되며, 영상의 기온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산불·화재 등이 많이 발생되므로 국민과 관계기관에 알려 사전대비 조치토록 하는 등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기상전망과 사회적 여건

-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밖에 활동이 잦은 관계로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막바지 추위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

재난피해 현황분석

【자연재난】

- ◆ 3월은 겨울철 중 해빙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달임
 - 최근 10년('04~'13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총174건의 자연재난으로 282명의 인명피해와 73,1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3월은 16건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만 7,702억원 발생

가. 대설

- 최근 10년간 3월 대설 피해는 '04. 3. 4~3. 5(6,734억원), '05. 3. 4~3. 13(252억원) 등 발생건수 적으나, 피해액은 연중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14. 3. 4~3. 5 기간 서울·경기 및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잠사 파손 등 6,734억원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에 차량 1만 여대, 1만 5천 여명이 최고 37시간 동안 고립되는 피해 발생

※ 최심신적설(cm) : 대전 49, 문경 49, 보은 39.9, 영주 35.8, 부여 29.8

‘05. 3. 4~3. 13 기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버스와 항공 등 주요 교통이 통제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25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 최심적설(cm) : 동해 90, 울진 57.6, 속초 55, 부산 37.2

또한, ‘10. 3. 9~3. 10 경기·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239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 최심신적설(cm) : 동두천 21.2, 서울 13.5, 전주 13.5, 원주 11.7, 청주 11.3, 천안 9

➔ **폭설 예상 시 24시간 상황관리, 도로 취약구간 제설장비 사전 배치 및 산간·고립예상지역 관리 철저,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의 눈 쓸어내기, 차광막 제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차량 고립시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나. 강풍·풍랑

● ‘07년 3. 4~8일 기간에 전해상에 강풍경보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풍랑으로 수산 증·양식 시설 등 2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완도지역은 순간 최대풍속 26.3m/s를 기록

● ‘07년 3. 28~29일 기간에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강풍으로 1명의 인명피해 및 비닐하우스 등 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순간 최대풍속(m/s) : 상주 28.7, 안동 25.5, 완도 24.5, 영월 22.7, 서산 21.2 등

➔ **강한 파도에 대비한 수산 증·양식시설, 선박 결박 및 해안가 인명 피해 우려지역 통제 등 철저한 상황관리 필요**

【사회재난】

◆ 최근 5년(‘08~‘12년)간 사회재난 발생은 총 1,440,582건이며, 이중 3월에는 117,911건(8.2%) 발생

- 3월 월평균 발생건수는 23,582건으로 전월(2월) 대비 12.9% 상승(2,695건)

가. 해빙기 안전사고

- 2월 하순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하면서 대형공사장 등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증가되는 시기로서 사전대비 필요
- ➔ 인명피해 위험시설 집중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예방대책 추진

나. 산 불

- 최근 5년('09~'13년)간 3월중 37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명(사망 2, 부상 1)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071ha의 산림 소실로 36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 봄철 등산객 화기소지 금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등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및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 강화, 진화헬기 등 산불진압 인력·장비 출동태세 확립, 산불예방·진화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소방활동】

- ◆ 최근 5년('10~'14)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2,044건이 발생하여 8,158명(사망 1,140, 부상 7,01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3월평균 화재는 4,437건, 인명피해는 199명이 발생함
- ◆ 5년 평균, 구조 : 17,762건/6,603명, 구급 : 114,282건/117,215명 이송

가. 화재

- 최근 5년간 3월 평균 화재(4,437건)중 발생장소는 야외소각 1,588건(35.8%), 주택 958건(21.6%), 자동차 421건(9.5%), 공장·창고 354건(8%)등 순으로 발생
- 최근 5년간 3월 평균 화재(4,437건)중 원인은 부주의 2,520건(56.8%), 전기적요인 834건(18.8%), 기계적요인 336건(7.6%) 등임

-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2,520건)는 담배꽂초 769건(30.5%), 쓰레기소각 452건(17.9%), 불씨방치 299건(11.8%) 등 순임

나. 구조·구급

● 5년 평균, 구조 : 17,762건/6,603명, 구급 : 114,282건/117,215명 이송

최근 5년간('10~'14) 3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 결과

- 구조 출동건수(22,633건)는 전월(18,494건)에 비해 22.4%(4,139건) 증가
- 구급활동(131,313건)은 전월(111,486건)보다 17.8%(19,827건) 증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34,163명(전월보다 17.9%, 20,387명 증가)



➔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 화재 안전수칙 홍보·교육 강화 및 구조 구급 대응체계 강화 등

재난안전 전망(요약)

재난안전 전망(요약)

< 인명·재산피해 및 국민불편 최소화 >

- 대체로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저수량 부족으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진화 어려움 예상
- 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및 따뜻해진 날씨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봄 나들이객 증가하고 각종 야외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요함

Contents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1
2. 2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5
(2) 사회재난	13
(3) 소방활동	19
(4) 해경활동	22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인천 영종대교 교통사고	26
(2) 서울 동작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27
4. 과거 2월 발생 주요 재난사례	
(1) 2004. 3. 4~3. 5 대설피해	28
(2) 보령화력 발전소 5호기 보수공사 중 비계붕괴	30
(3) 목포 진도 근해 대광號 전복사고 발생	31
5. 재난관리 정보마당	
▷ 대설 대비 행동요령	33
▷ 강풍 대비 행동요령	35
▷ 풍랑 대비 행동요령	36
▷ 화재 대비 안전행동요령	38
▷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42
6. 주요 언론보도 사항	
▷ 2015년 2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44

1 기상전망 및 사회적 여건

기상전망

I 3월 기상전망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밤낮의 기온 변화가 크겠음

날씨 전망

- (1주)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2주) 약화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3주)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기온 및 강수량

기간	요소 평년 (℃)	평균기온			평년 (mm)	강수량		
		확률(%)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1주 (03.02~03.08)	3.7	35	45	20	13.4	45	30	25
2주 (03.09~03.15)	5.3	30	45	25	11.7	35	45	20
3주 (03.16~03.22)	6.8	20	45	35	14.4	30	40	30
4주 (03.23~03.29)	7.4	20	45	35	12.4	20	45	35

II 3개월 기상전망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기온 변화가 큰 날이 때때로 발생

날씨 전망

-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4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일시적인 고온 현상을 보일 때도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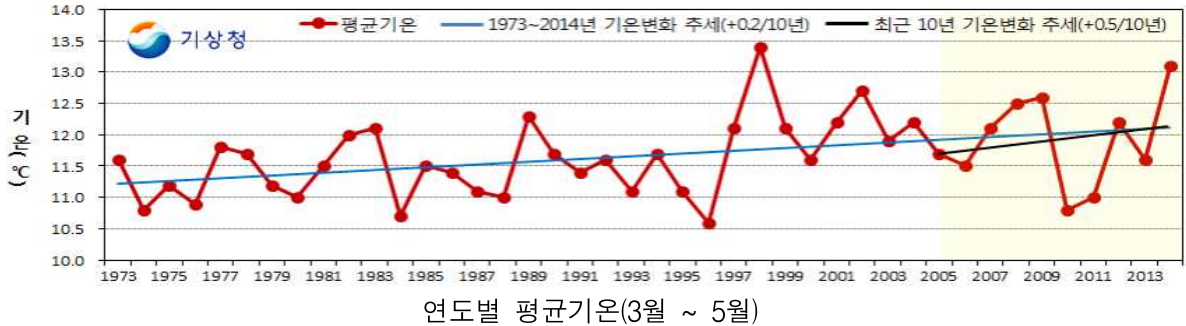
기온 및 강수량

요소 기간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 (°C)	확률(%)			평년 (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3월	5.9	30	45	25	56.4	30	45	25
4월	12.2	20	45	35	78.5	25	40	35
5월	17.2	30	40	30	101.7	30	40	30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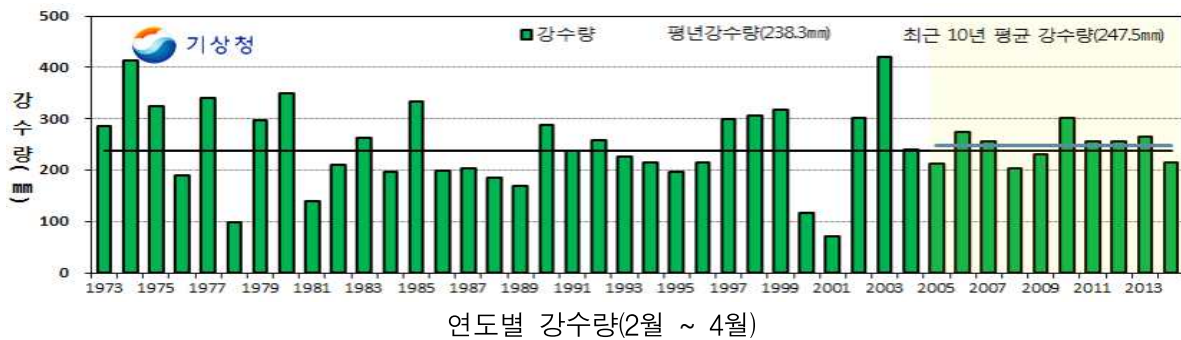
- 최근 10년 봄철 평균기온은 11.9°C로 평년(11.7°C)보다 0.2°C 높았음.

※ 최근 10년 평균기온 변화 추이(°C/10년) : 3월 +1.0, 4월 -0.5, 5월 +1.0



● 강수량

- 최근 10년 봄철 강수량은 247.5mm로 평년(238.3mm) 대비 104%를 기록하였음.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 값

기후 요소	단위	3월	4월	5월
평균기온(평년편차)	°C	6.2(+0.3)	11.9(-0.3)	17.7(+0.5)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C	12.0 / 0.8	18.2 / 6.0	23.8 / 12.0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62.8 / 8.7	80.8 / 8.8	103.9 / 8.5
일조시간	시간	200.8	205.8	225.6
일최저기온 0°C 미만 일수	일	13.8	1.9	0
일교차 10°C 이상 일수	일	17.9	19.3	20.1

※ 기온·강수량은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황사일수는 17개 지점 평균임.

※ 평년기간 : 1981~2010년

↘ 사회적 여건

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및 따뜻해진 날씨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봄 나들이객 증가하고 각종 야외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예상됨

● 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 등에 의한 산불발생 예상

- 대체로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저수량 부족으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진화 어려움 예상
- 영농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소각 등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
-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산림 내 연소물질 증가 및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전국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 우려

● 봄나들이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

- 산행 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 및 산악사고 발생 우려
-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어 각종 봄철 지역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

● 해빙기 동결지반 융해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요인 증가

- 동결된 지반이 융해되면서 축대·옹벽 등의 붕괴 및 건축물·대형공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 예상
- 대규모 도로절개지 및 낙석위험지구의 토사 붕괴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소규모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2 3월 재난발생 현황 분석

자연재난

I 자연재난 분석

3월은 이상기후에 의한 폭설과 강풍·풍랑 피해가 우려되고, 황사는 평년 대비 최근 10년간 증가세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기상상황

- 최근 10년('04~'13년)간의 기상특보 발표현황을 보면, 3월에는 1,265회의 특보 발령으로 연중 4번째로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남
- 대설, 강풍·풍랑, 건조 특보는 3월에 가장 많이 발표(87%)되었으며, 황사(6.4%), 한파(2.2%), 호우(4.7%) 등의 기상특보 현황을 보였으며, 이중 황사특보는 연중 최고치를 보였음

【최근 10년('04 ~ '13년)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125	1,401	1,066	1,265	1,103	666	654	2,193	2,078	1,016	527	1,005	1,151
태풍	450	-	-	-	-	-	14	89	140	184	23	-	-
호우	4,210	7	18	60	116	205	427	1,544	1,281	424	67	54	7
대설	1,467	475	294	204	13	-	-	-	-	-	1	83	397
강풍	2,402	205	211	325	370	169	71	149	148	124	145	293	192
풍랑	3,598	409	337	419	382	184	127	174	241	268	277	453	327
건조	812	138	138	148	171	56	-	-	-	-	7	75	79
해일	35	-	-	-	-	-	4	7	21	3	-	-	-
한파	404	167	53	28	-	-	-	-	-	-	7	21	128
황사	246	-	15	81	51	52	-	-	-	-	-	26	21
폭염	501	-	-	-	-	-	11	230	247	13	-	-	-

❏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4~'13년)간 자연재해 발생현황은 총174건의 자연재난으로 282명의 인명피해와 73,199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3월은 16건이 발생하여 1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만 7,702억원 발생

【최근 10년간('04~'13년)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74	12	14	16	12	3	11	35	28	14	8	7	14
인명피해(명)	282	-	-	1	-	-	6	173	44	32	12	-	14
재산피해(억원)	73,199	545	558	7,702	397	9	2,348	29,457	16,133	9,176	843	121	5,910

- 최근 10년('04~'13년)간 3월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총 16회 중 대설 6회, 강풍·풍랑 9회, 호우 1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대설로 7,265억원, 강풍·풍랑으로 411억원, 호우 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가장 피해가 컸던 자연재해는 '04년 대설(재산피해 6,734억원)¹ 과 '05년 대설(재산피해 252억원), '10년 대설(재산피해 239억원), '07년 풍랑피해(재산피해 230억원) 임

1) '04년 대설(3.4~3.5) : 대전 및 문경 중부지방에 1904년 관측 이래 3월에 내린 하루 적설량 최고

① 대설

【현황】

- 최근 10년('04~'13년)간 대설피해는 총 39건 발생, 인명피해 14명과 재산피해 13,990억원 발생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대설 피해 발생회수 및 인명피해 현황 - 재해연보】

분야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설	발생회수	39	10	10	6	-	-	-	-	-	-	-	1	12
	인명피해(명)	14	-	-	-	-	-	-	-	-	-	-	-	14
	재산피해(억원)	13,990	435	438	7,266	-	-	-	-	-	-	-	13	5,838

【분 석】

- 최근 10년간 3월 대설 피해는 '04. 3. 4~3. 5(6,734억원), '05. 3. 4~3. 13(252억원) 등 발생건수 적으나, 피해액은 연중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04~'13년) 2월 대설 피해 현황 - 재해연보】

기 간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 고
계	-	7,266		
'04.3.4~3.5	-	6,734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남, 전북·남, 경북	
'05.3.4~3.13	-	252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남·북, 제주	
'08.3.3~3.4	-	2	강원, 경북	
'09.3.26	-	35	강원	
'10.3.9~3.10	-	239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10.3.17	-	4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 특히, '14. 3. 4~3. 5 기간 서울·경기 및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잠사 파손 등 6,734억원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에 차량 1만 여 대, 1만 5천여명이 최고 37시간 동안 고립되는 피해 발생

※ 최심신적설(cm) : 대전 49, 문경 49, 보은 39.9, 영주 35.8, 부여 29.8

- '05. 3. 4~3. 13 기간 강원 및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버스와 항공 등 주요 교통이 통제되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252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 최심적설(cm) : 동해 90, 울진 57.6, 속초 55, 부산 37.2

- 또한, '10. 3. 9~3. 10 경기·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239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

※ 최심신적설(cm) : 동두천 21.2, 서울 13.5, 전주 13.5, 원주 11.7, 청주 11.3, 천안 9

<'04. 3. 4~3. 5. 대설 피해 현황 >

- ▷ 지 역 :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 최심적설(cm) : 대전 49.0, 문경 49.0, 보은 39.9, 영주 35.8, 부여 29.8
 - ※ 1904년 관측 이래 3월에 내린 하루 적설량 최고 기록 갱신
- ▷ 재산피해 : 6,734억원(충남 3,529, 충북 1,918, 대전 669, 경북 534, 경기 등 84)
- ▷ 재해원인 : 북서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 발달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의 상·하층 공기차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대설 발생
- ▷ 제설 인력 및 장비 : 투입인원 1,020명, 장비 995대, 제설재 2,487톤



- ➔ 폭설 예상 시 24시간 상황관리, 도로 취약구간 제설장비 사전 배치 및 산간·고립예상지역 관리 철저
-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의 눈 쓸어내기, 차광막 제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차량 고립시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

2 강풍·풍랑

【현 황】

- 최근 10년('04~'13년)간 강풍·풍랑 피해는 총 39회가 발생하여 1,365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4~'13년)간 월별 강풍·풍랑 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구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39	2	4	9	10	2	-	1	-	-	5	4	2
인명피해 (명)	12	-	-	1	-	-	-	-	-	-	11	-	-
재산피해 (억원)	1,365	110	120	412	367	9	-	42	-	-	127	106	72

【분 석】

- 3월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는 4회가 발생, 120억원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04~'13년)간 3월중 강풍·풍랑 피해현황 - 재해연보】

분야	기 간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 계		-	411	
풍 랑	'06.3.11~3.13	-	55	충남
풍 랑	'07.3.4~3.8	-	230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남, 전북·남, 경북·남, 제주
강 풍	'07.3.28~3.29	1	67	대전, 충북·남, 전북·남, 경북
풍 랑	'09.3.12~3.15	-	31	인천, 경기, 충남, 전남
풍 랑	'10.3.1~3.2	-	21	전남
풍 랑	'10.3.11~3.13	-	2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남, 경북·남
풍 랑	'10.3.20~3.21	-	4	인천, 강원, 충남, 경북·남
강풍·풍랑	'12.3.11	-	1	경기
강풍·풍랑	'13.3.1~3.2	-	-	전남

- '07년 3.4~8일 기간에 전해상에 강풍경보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풍랑으로 수산 중·양식 시설 등 2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완도지역은 순간 최대풍속 26.3m/s를 기록
- '07년 3.28~29일 기간에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발

생한 강풍으로 1명의 인명피해 및 비닐하우스 등 6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순간 최대풍속(m/s) : 상주 28.7, 안동 25.5, 완도 24.5, 영월 22.7, 서산 21.2 등

➔ 강한 파도에 대비한 수산 증·양식시설, 선박 결박 및 해안가 인명 피해 우려지역 통제 등 철저한 상황관리 필요

2] 황사

【현황】

- 평년('81~'10년)간 연중 황사 발생일수는 6.1일이며, 이중 3월에 황사 발생일수는 1.8일 이었으나, 최근 10년('05~'14년)간 연중 황사 발생 일수는 7.4일 3월중에는 2.3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 평년('81~'10) 및 최근 10년('05~'14) 간 3월중 황사 발생 평균값(단위 : 일) - 기상청 】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년('81~'10)	6.1	0.2	0.1	1.8	2.4	1.0	-	-	-	-	-	0.2	0.4
최근10년('05~'14)	7.4	0.2	0.2	2.3	1.5	1.5	-	-	-	0.1	0.1	0.6	0.9

※ 황사일수 : 전국 17개 목측 관측지점 중 황사가 관측된 지점의 수를 전체 지점수로 나눈 평균값

【분석】

- 평년('81~'10년)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발생건수는 4월 → 3월 → 5월 순이었으나, 최근 10년('05~'14년)간에는 3월 → 4월· 5월 순이었음

※ 최근 대형 황사 발생 사례 : '10.3월 $2,712\mu\text{g}/\text{m}^3$ (흑산도), '07.4월 $2,019\mu\text{g}/\text{m}^3$ (대구), '10.11월 $1,664\mu\text{g}/\text{m}^3$ (백령도), '08.3월 $1,428\mu\text{g}/\text{m}^3$ (대구) 등

- 최근 3월 황사 피해 사례(황사농도 단위: $\mu\text{g}/\text{m}^3$)

- ('08.3.2~3일) 남부지방 중심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 : 대구 1,428, 광주 1,330, 진주 721 등)가 관측되어 일부 초등학교가 임시휴교 실시

- ('07.3.31~4.2일) 전국적으로 매우 짙은 황사(최고농도 : 대구 2,019, 대관령 1,911, 백령도 1,283, 관악산 1,233 등)가 관측되어 프로야구경기 취소 및 일부 초등학교 임시휴교 실시

※ 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800\mu\text{g}/\text{m}^3$ 이상일 때
 짙은 황사 : $400\sim 800\mu\text{g}/\text{m}^3$ 일 때 / 약한 황사 : $400\mu\text{g}/\text{m}^3$ 미만일 때

< 황사피해 유형 >

- ◇ 시정장애 초래로 육상, 해상 등 교통 운행 중단·지연 및 사고 발생 가능성 증대
- ◇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안질, 심혈관계 질환 유발
- ◇ 비닐하우스 피복 작용으로 일사량이 감소하여 낙과율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
- ◇ 먼지바람으로 인한 도장작업 중단 등으로 인한 작업 소요일수 증가
- ◇ 이용객 감소로 인한 백화점, 할인점,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매출 감소
-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휴교 또는 단축수업 초래
-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엔진 등 정밀전자, 기계제품의 불량률 증가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유관기관 간 황사 관측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운영 필요

II 중점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설에 대비, 현장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설·교통소통대책 시행 추진 및 황사 피해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대응 체계 강화 추진

● 폭설 대비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및 상황관리체계 운영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4.12.1~'15.3.15)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
- 기상정보 사전 파악, CCTV 등을 활용한 강설·제설 상황 모니터링
- 산간마을 등 고립예상지역 제설대책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운영
- 강설대비 24시간 상황관리 및 제설장비·인력 사전확충 등 대응
- 고속도로 등 도로등급별 취약구간 지정 및 제설 책임담당제 시행
- 램프, 교차로, 고가 차로 제설 및 우회도로 등 교통소통대책 강구
- 대설특보 발효 시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계도

● 강풍·풍랑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시설물 피해 방지

- 풍랑특보 시 어업종사자 조업 자제 및 선박출항 통제
- 강풍 특보시 공사장 크레인 운행정지·전도 방지를 위한 사전 보강 및 간판·조형물 등 옥외 시설물 결박 및 사전제거
- 특보 발효 시 외출·외부 활동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

● 황사 대응체계 구축

- 황사 피해 우려 시 학교 등·하교 시간 조정, 해당지역 학교 휴교령 전면 검토 실시
- 야외활동 및 행사금지, 옥외사업장 작업 일시 중단 권고 및 응급상황 대비 구급체계 강화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신속한 상황전파 등 황사대응체계 구축·운영하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강화

사회재난

I 사회재난 분석

건조한 날씨와 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증가 및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등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날씨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발생현황

- 최근 5년('08~'12년)간 사회재난 발생은 총 1,440,582건이며, 이중 3월에는 117,911건(8.2%) 발생
- 3월 월평균 발생건수는 23,582건으로 전월(2월) 대비 12.9% 상승(2,695건)
 - 교통사고·화재·산불·농기계·수난 등 대부분 증가한 반면 산악은 감소

【최근 5년('08~'12년)간 2월중 사회재난(사고) 발생현황 - 재난연감】

구 분		계	교통	화재	해양	산불	수 난 (물놀이)	산악	농기계	붕괴	감전	기타
5년 전체	총건수	1,440,582	1,120,057	225,936	7,697	1,715	13,116	16,938	4,501	1,310	2,436	46,876
	3월	117,911	87,864	23,413	566	343	572	1,032	336	93	156	3,536
5년 평균 (전월 비교)	2월	20,887	15,269	4,528	92	36	87	230	28	21	26	570
	3월	23,582	17,573	4,683	113	69	114	206	67	19	31	707
	증감	2,695	2,304	155	21	33	27	△24	39	△2	5	137

※ 기타 : 레저, 추락, 철도, 가스, 환경오염, 폭발, 광산 사고 등

< 3월 발생 주요 사건·사고 사례 >

- ◇ '13.3.31 여수시 화치동 대림산업 HDPE공장 폭발화재(사망 6명, 부상 11명)
- ◇ '10.3.26 인천 백령도 해상 천안함 침몰(사망 46명, 부상 58명)
- ◇ '08.3.22 전남 무안 주택 촛불부주의 화재(사망 5명)
- ◇ '07.3.17 서울 구로구 공사장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망 1명, 부상 59명)
- ◇ '06.3.19 경북 포항앞바다 기상악화로 저인망어선 전복 침몰(사망 5명, 실종 4명)
- ◇ '06.3.18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신축공사장 붕괴(사망 4명, 부상 11명)
- ◇ '04.3.16 강원 강릉 옥계 방화추정 산불(산림 430ha 소실)
- ◇ '03.3.16 충남 천안시 성황동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망 8명, 부상 17명)

주요 재난별 분석

1 해빙기 안전사고

【현황】

- 최근 7년('07~'13년)간 지반침하, 흙막이벽 붕괴, 절개지 유실,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붕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해빙기(2~3월) 동안 67건의 붕괴사고로 39명(사망 15, 부상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건설공사장(89.7%)에서 발생
 - ※ 단, 인명피해는 '07년(21명)과, '09년(18명)에 발생하였으며, '10년부터 최근 4년간 인명피해 없음
 - 장소별로는 67건 중 절개지 36건(53%), 축대·옹벽 14건(21%), 건설공사장 13건(20%) 등에서 붕괴·낙석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 최근 7년('07~'13년)간 해빙기 붕괴사고 발생현황 】

년도	총계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			축대·옹벽			기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평균	9.6	2.1	3.4	1.8	2.0	3.0	5.1	0.1	0.1	2.0	0	0.3	0.6	0	0
합계	67	15	24	13	14	21	36	1	1	14	0	2	4	0	0
2007	23	8	13	5	7	10	15	1	1	3	0	2	0	0	0
2008	13	0	0	0	0	0	9	0	0	1	0	0	3	0	0
2009	15	7	11	7	7	11	6	0	0	1	0	0	1	0	0
2010	8	0	0	0	0	0	3	0	0	5	0	0	0	0	0
2011	4	0	0	0	0	0	2	0	0	2	0	0	0	0	0
2012	3	0	0	0	0	0	1	0	0	2	0	0	0	0	0
2013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분석】

- 2월 하순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하면서 대형공사장 등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증가되는 시기로서 사전대비 필요

< 해빙기 주요 안전사고 사례 >

- ◇ '14.03.16 서울 북한산 인수봉 암벽 등반로 휴식처(일명 오아시스) 낙석(사망 1명, 부상 1명)
- ◇ '13.03.17 서울 봉천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H=11m, L=50m)
- ◇ '12.03.25 충북 단양군 현천리 국도 5호선 도로절개지 붕괴(H=15m, L=10m, 34㎡)
- ◇ '11.03.26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국도 26호선 절개지 낙석(승용차 파손 1대)
- ◇ '09.02.15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내 터파기 공사현장 붕괴(사망 3명, 부상 7명)
- ◇ '06.03.27 서울 영등포, 공장 건설현장 H빔 붕괴(사망 2명, 부상 9명)
- ◇ '05.03.20 전북 익산, 아파트 공사현장 흙더미 붕괴(사망 1명, 부상 2명)

➔ 인명피해 위험시설 집중관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교육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예방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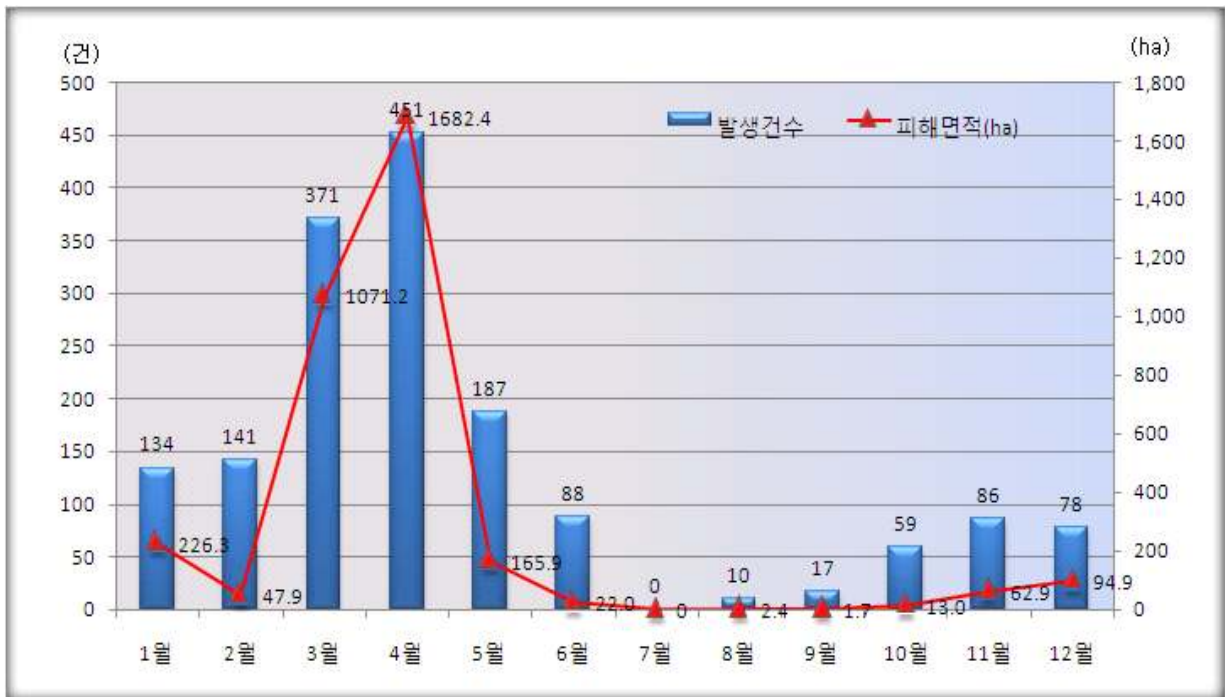
2 산불

【현 황】

● 3월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영농기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활동이 활발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임

- 최근 5년('09~'13)간 봄철(3~5월) 중 3월 371건(21.6%), 4월 451건(26.3%), 5월 187건(10.9%) 등으로 건조기인 3~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최근 5년('09~'13)간 월별 산불 발생현황 - 산림청】



- 최근 5년('09~'13년)간 3월중 37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명(사망 2, 부상 1)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071ha의 산림 소실로 36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5년('09~'13년)간 2월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연도별	건 수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백만원)	임목피해 (ha)
		계	사 망	부 상		
계	371	6	4	2	36,722	1,071.21
2009년	119	4	2	2	207	68.51
2010년	22	-	-	-	22	8.03
2011년	94	1	1	-	14,110	505.72
2012년	23	1	1	-	235	9.11
2013년	113	-	-	-	22,148	479.57

- 3월에 발생한 산불 371건의 원인을 분석하면,
 - 논밭두렁 소각 116건(31.3%), 입산자 실화 81건(21.8%), 쓰레기 소각 79건(21.3%) 등 순임

【 최근 5년('09~'13년)간 3월 중 원인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연도	합계	입산자실화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불장난	건축물	기타
합계	141	81	116	79	23	15	7	5	45
2009	32	31	36	22	7	6	2		15
2010	30	5	6	7	0	2	1		1
2011	40	29	23	22	6	1	1		12
2012	9	5	8	2	0	1	1	4	2
2013	30	11	43	26	10	5	2	1	15

- 2월에 발생한 산불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 40건(22.1%), 경북 36건(19.9%), 전남 30건(16.6%), 부산 16건(8.8%), 강원 15건(8.3%), 충북 13건(7.2%) 순으로 발생됨

【 최근 5년('09~'13년)간 3월 중 지역별 산불발생현황 - 산림청 】

년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71	4	15	9	9	10	4	18	2	9	23	45	12	30	53	78	49	1
2009	119	1	4	7	4	4	3	1	-	4	4	17	3	7	11	39	10	-
2010	22	-	1	1	2	-	-	2	-	1	1	2	-	1	4	1	6	-
2011	94	1	3	1	1	2	1	7	-	-	6	14	2	3	13	24	16	-
2012	23	-	2	-	-	1	-	1	-	1	2	6	1	1	4	-	4	-
2013	113	2	5	-	2	3	-	7	2	3	10	6	6	18	21	14	13	1

< 3월 산불발생 사례 >

- ◇ '14.3.05 충남 버령 응천군 불피비화로 인한 산불(8ha 소실)
- ◇ '11.3.30 경북 고령군 성산면 축사용접 실화로 인한 산불(186.7ha 소실)
- ◇ '04.3.28 경북 봉화군 춘양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123ha 소실)
- ◇ '04.3.16 강원 강릉시 옥계면 방화로 인한 산불(430ha 소실)
- ◇ '04.3.10 강원 속초시 노학면 고압선 절단으로 인한 산불(180ha 소실)

➡ 봄철 등산객 화기소지 금지,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 등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및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 강화, 진화헬기 등 산불진압 인력·장비 출동태세 확립, 산불예방·진화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Ⅲ 중점추진사항

봄철 때 이른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산불 발생 요인 증가 및 해빙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각종 봄철 지역축제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

-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연계, 산불조심 홍보 및 경각심 제고
- 중앙, 지자체간 산불예방 활동 협조체제 구축 및 등산객, 산행단체, 등산객 등과 안전한 산행문화 캠페인 전개
- 산림청 봄철(2.1~5.15) 산불조심기간 중 취약지역 입산통제 실시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등 주요 시기별 예방활동 강화
- 통합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정보 모니터링 강화
- 입산객 관리강화 및 체계적인 산불감시로 불필요한 소각행위 근절

●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홍보추진

- 인명피해 위험시설 선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안전점검 등 추진
- 위험표지판, 재난안전선 등 안전시설 설치
- 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모니터링(재난징후정보센터)
- 해빙기 공사장 안전교육 및 문자전광판,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봄철 각종 지역축제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대책 강화

-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고발생 대비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소방·경찰·공무원 등 안전요원 배치 등 상황관리 체계 유지 및 사전 사고예방 홍보활동 실시

소방활동

I 화재 분석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하게 부는 3월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임야 화재 발생이 높아 철저한 예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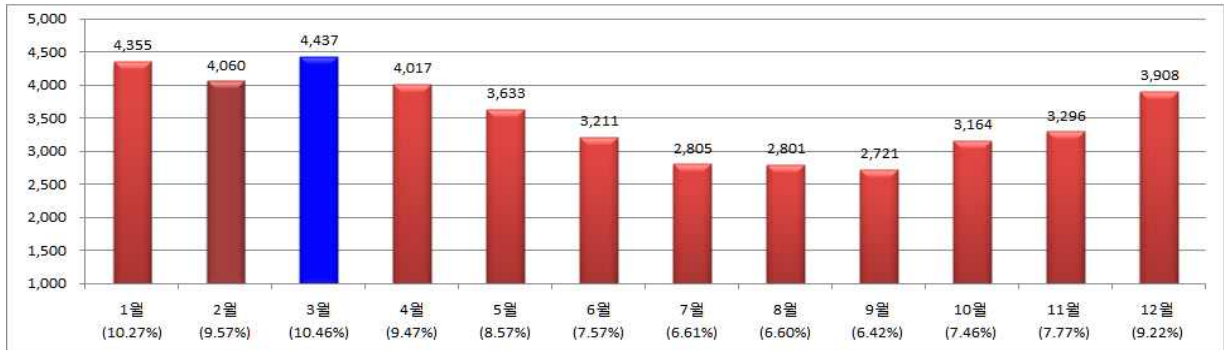
【현 황】

● 최근 5년('10~'14)간 전국의 화재는 총 212,044건이 발생하여 8,158명(사망 1,140, 부상 7,01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3월평균 화재는 4,437건, 인명피해는 199명이 발생함

※ 연도별 화재건수(3월) : '10년 41,863건(3,409건), '11년 43,875건(5,262건), '12년 43,248건(4,081건), '13년 40,932건(4,805건), '14년 42,126건(4,629건)

【최근 5년('10~'14)간 월평균 화재 발생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 석】

● 최근 5년간('10~'14) 3월 중 화재는 평균 4,437건(총 22,286건)이 발생하여 33명(총 167명)이 사망하고, 32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 1일 평균 화재 147건, 사망 1명, 재산피해 1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함

구 분	화재건수 (평균)	인명피해 (사망)	재산피해 (억원)
5년 평균	4,437	33	322
14년 3월	4,629	37	595
13년 3월	4,805	33	236
12년 3월	4,081	28	149
11년 3월	5,262	39	163
10년 3월	3,409	30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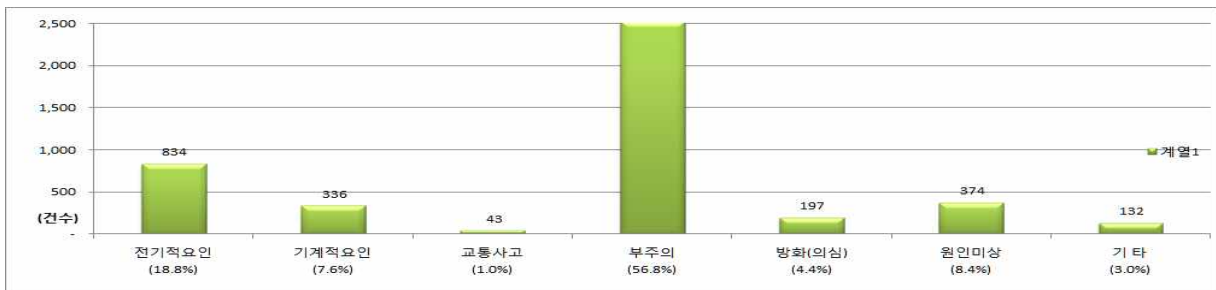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3월 평균 화재(4,437건)중 발생장소는 야외소각 1,588건(35.8%), 주택 958건(21.6%), 자동차 421건(9.5%), 공장·창고 354건(8%)등 순으로 발생

【최근 5년('10~'14년)간 2월 화재 발생 장소(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분	계	주택 (공동)	사무 판매	공장 창고	음식점 서비스	자동차	야외 (소각등)	동식물 시설	기타 건축물	기타
건수 (평균)	4,437	958	178	354	373	421	1,588	157	233	177
비율(%)	100.0	21.6	4.0	8.0	8.4	9.5	35.8	3.5	5.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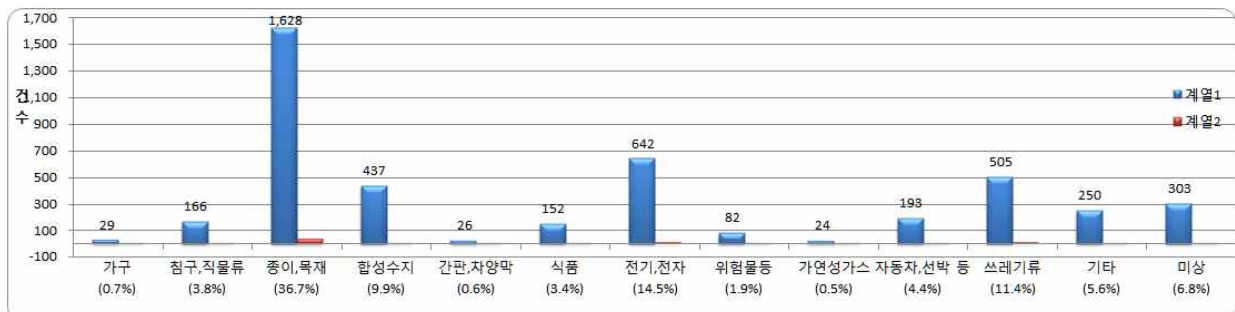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3월 평균 화재(4,437건)중 원인은 부주의 2,520건(56.8%), 전기적요인 834건(18.8%), 기계적요인 336건(7.6%) 등임
-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2,520건)는 담배꽂초 769건(30.5%), 쓰레기소각 452건(17.9%), 불씨방치 299건(11.8%) 등 순임

【최근 5년('10~'14년)간 3월 화재 발생 원인(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최근 5년간 3월평균 화재(4,437건)중 최초 착화물은 종이·목재 1,628건(36.7%), 전기·전자가 642건(1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쓰레기류 505건(11.4%), 합성수지 437건(9.9%) 순으로 나타남.

【최근 5년('10~'14년)간 3월 화재 최초 착화물(국가화재정보시스템)】



II 구조·구급 통계 분석

해빙기를 맞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봄맞이 각종 행사 등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5년 평균, 구조 : 17,762건/6,603명, 구급 : 114,282건/117,215명 이송
- 최근 5년간('10~'14) 3월 중 구조·구급 통계 분석 결과
 - 구조 출동건수(22,633건)는 전월(18,494건)에 비해 22.4%(4,139건) 증가
 - 구급활동(131,313건)은 전월(111,486건)보다 17.8%(19,827건) 증가,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134,163명(전월보다 17.9%, 20,387명 증가)



- 최근 5년간 3월의 인명구조 활동은 화재, 교통, 산악사고 순 발생

구분	계	화재	교통	수난	폭발	기계	산악	자연재해	기타
건	17,762	3,186	2,131	219	13	180	447	52	11,535
비율(%)	100	17.9	12	1.2	0.1	1.0	2.5	0.3	64.9

- 3월의 구급활동은 질병이 56.5%로 가장 높고, 교통사고가 18.1% 차지

구분	계	질병	의도성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타
인원(명)	117,215	66,206	13,212	21,194	7,352	9,250
비율(%)	100	56.5	11.3	18.1	6.3	7.9

해경활동

I 중국어선 단속 현황

【현황】

- '15년 1월 ~ 2월 현재까지 약4만3천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수역 내·외측에서 조업하였으며 중국 춘절연휴(2.17~24일)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중국어선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성어기(4~6월)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최근 3년(12~14년)간 중국어선 조업현황에서도 1월 10만여척에서 2월 4만여척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3월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최근 3년('12~14년)간 중국어선 조업현황(해양경비안전국)】

년도	해역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허가	85,470	9,302	8,482	5,428	8,185	5,998	0	0	0	680	11,920	17,065	18,410
	잠정	223,089	17,213	7,670	15,380	30,224	24,033	1,968	4,303	12,353	23,835	37,484	21,708	26,918
	NLL	46,409	924	515	844	2,322	6,527	7,406	2,799	2,573	10,302	8,583	2,491	1,123
'13	허가	80,412	13,069	3,318	4,399	3,880	3,622	0	0	197	5,621	10,374	17,051	18,881
	잠정	203,492	28,396	7,511	11,064	18,010	25,109	8,595	7,100	10,654	13,264	25,496	23,137	25,156
	NLL	33,499	495	204	667	3,491	7,570	6,248	1,674	1,135	3,437	4,418	3,079	1,081
'14	허가	81,978	10,112	2,399	1,355	6,444	4826	0	0	2,067	6,399	11,259	19,709	17,408
	잠정	147,470	21,729	9,512	16,174	15,172	15,735	1,842	1,650	1,496	1,672	21,051	22,712	18,725
	NLL	44,969	439	325	1,986	5,639	7,243	7,041	2,372	1,342	6,659	5,568	4,536	1,819
'15 (~2월 24일)	허가	17,133	13,482	3,651										
	잠정	24,448	19,918	4,530										
	NLL	1,153	847	306										
최근 3년 (12~14년) 계		946,788	101,679	39,936	57,297	93,367	100,663	33,100	19,898	31,817	71,869	136,153	131,488	129,521
비율			11%	4%	6%	10%	11%	3%	2%	3%	8%	14%	14%	14%

* 중국어선 총 조업척수 변화 : 12년 355천여척 → 13년 317천여척 → '14년 274천여척

- NLL 주변 중국어선은 3월까지의 50여척 미만을 유지하다가, 꽃게 성어기(4~6월)가 시작되는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3년('12~14년) 평균에서도 4월부터 日평균 100여척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까지 200여척 이상이 조업함

【최근 3년('12~14년)간 NLL 주변 중국어선 조업(일평균) 현황(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30	18	27	77	210	247	90	83	343	277	83	36
'13년	16	7	22	116	244	208	54	36	114	142	103	35
'14년	15	12	64	188	234	235	77	43	222	179	151	59
'15년	27	13										
최근 3년('12~14년)	20	12	38	127	229	230	74	54	226	199	112	43
비율	1%	1%	3%	9%	17%	17%	5%	4%	17%	15%	8%	3%

- 최근 3년('12~'14)간 총 1,295척의 중국어선을 단속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목포 727척(56%), 제주 149척(12%), 인천 139척(11%) 등 순이며, 선적항별로는 요녕성 560척(43%), 산둥성 515척(40%), 절강성(6%) 등 순임

【최근 3년('12~1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분	나포(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침범	비고(NLL)	구 속		담보금(원)
		계	무허가	제한조건			척수	인원	
'14년	341	317	85	232	24	25	36	75	189억 9,000만원
'13년	487	453	149	304	34	40	81	183	244억 1,750만원
'12년	467	436	106	330	31	41	71	173	171억 4,900만원

【최근 3년('12~14년)간 지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인천	평택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울산
'14년	341	34	1	23	34	167	59	23	-
'13년	487	42	-	37	29	268	48	12	-
'12년	467	63	-	17	48	292	42	5	-
최근3년 계	1,295	139	1	77	111	727	149	40	0
비율		11%	0%	6%	9%	56%	12%	3%	0%

【최근 3년('12~'14년)간 선적항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기 타
'14년	341	123	152	18	48
'13년	487	174	226	44	43
'12년	467	218	182	19	48
최근3년 계	1,295	515(40%)	560(43%)	81(6%)	139(11%)

- 최근 3년('12~'14)간 월별 나포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시기는 동절기인 11월~2월이며 총 나포척수의 70%를 차지함
 업종별로는 저인망이 어선이 827척(64%), 유자망 354척(27%), 운반선 70척(6%) 등 순임

【월별 중국어선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2.25)	97	64	33										
'14년	341	35	11	19	14	14	6	0	4	20	41	90	87
'13년	487	83	28	22	48	48	5	1	5	26	85	84	52
'12년	467	63	66	34	52	70	4	2	4	20	49	52	51
최근3년 계	1,392	245	138	75	114	132	15	3	13	66	175	226	190
비율	-	14%	8%	6%	9%	10%	1%	0.2%	1%	5%	14%	17%	15%

【최근 3년('12~'14년)간 업종별 나포현황 - 해양경비안전국】

	계	저인망	유자망	운반선	기타
'14년	341	226	83	13	19
'13년	487	305	141	24	17
'12년	467	296	130	33	8
최근3년 계	1,295	827	354	70	44
비율		64%	27%	6%	3%

II 해상조난사고

【현 황】

본격적인 어로가 시작되는 해빙기를 맞아 일시에 많은 어선들이 조업에 참여하면서 통항선박과의 충돌, 좌초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어선 및 통항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

- 5년 평균 선박사고는 총 1,495척 / 9,989명 발생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4척(96.1%) 및 승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승선원 875명(1.8%)이 사망(631명)·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479	49,945	7,184	49,070	295	875	631	244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7	485	396	89
2013년	1,052	7,963	1,014	7,896	38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 최근 5년간 3월의 선종별 사고 현황은 어선, 예부선, 화물선, 여객선 등의 순으로 발생

구 분	계	어선	여객선	유도선	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관공선	기타
건	601	460	12	3	22	6	31	1	66
비율(%)	100	76.5	2	0.5	3.7	1	5.2	0.1	11

3

최근 발생한 주요재난사고

1 인천 영종대교 교통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5. 2. 11(수) 09:45 ~ 13:52
- 장 소 : 인천 공항공속도로 『영종대교 서울방향 13.9km지점』
- 원 인 : 안개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

《개요》

- ◆ 인천 영종대교 서울방향에서 짙은 안개로 인한 다중(100종이상) 추돌사고 발생하여 인명구조 및 병원이송
 - * 서울방향 전면통제 / 하부(공항방향)에서 양방향 통행 및 15:12 정상 통행
 - ** 사고당시 가시거리 50m

■ 인명피해 : 사상 71명(사망2, 중상12, 경상57, 외국인 20명)

■ 동원현황 : 10개서 266명 82대

■ 현장활동 및 주요조치사항

- 현장도착 즉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본부장 · 소방서장 현장지휘
- 유관기관 상황전파 / 현장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지시
- 중앙119구조본부 및 서울 · 경기 구급차 지원출동 지시
- 국민안전처 중동단 가동(10:39) / 인천 대응2단계 발령(10:41)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서울방향 1차선 부분통행(11:40)

■ 현장사진



2 서울 동작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 사고개요

- 일 시 : 2015. 2. 21(수) 16:53
- 장 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27길 247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
* 시공사 아트건설(주), 감리 (주)단건축사무소
- 원 인 : 조사 중

《개 요》

◆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 지하1층 천장 타설 공사 중 거푸집 일부 붕괴되어 근로자 11명 매몰된 상태로 인명 구조

* 사당종합체육관 : 2/1층 연면적 7,102㎡, 공사기간 : '13.6.24~'15.6.23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11명 (중상 3, 경상 8)
- ※ 매몰자 11명 구조 / 인부 1명 자력대피 (중국인 7명)
- 이송병원 : 중앙대7, 강남고려1, 강남성심1, 동작경희1, 보라매1

■ 동원현황

- 인원 및 장비 : 7개소방서, 345명, 40대

■ 주요조치사항

- 현장 도착 인원 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 실시 / 본부장·서장 현장지휘
- 상황접수 즉시 상급기관 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 전파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대응2단계 발령(17:07) / 국민안전처 구조과·구급과 상황 전파
-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지대·경기 출동

■ 사고현장 사진



《사례 1》 2004. 3. 4 ~3. 5 대설 피해

발생 개요

● 피해지역 :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최심적설(cm) : 대전 49.0, 문경 49.0, 보은 39.9, 영주 35.8, 부여 29.8

- 특별재난지역 선포 → 1904년 관측 이래 3월에 내린 하루 적설량 최고 기록 갱신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없음

- 재산피해 : 6,734억원(충남 3,529, 충북 1,918, 대전 669, 경북 534, 경기 등 84)

< 세부 피해 내역 >

◇ 이재민 : 25,145명

◇ 주택 : 전파 44동, 반파 50동

◇ 공공시설 : 학교시설 79동, 군사시설 22개소, 기타 소규모시설 등 1식

◇ 사유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 622개소, 축사·잠사 8,990동, 비닐하우스시설 2,221ha, 기타 인삼재배시설 등 1식

※ 경부고속도로(천안~죽암), 중부고속도로(진천~남이분기점) 내 차량 1만 여대가 최대 37시간 동안 고립

● 대설원인 : 북서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 발달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의 상·하층 공기차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대설 발생

대설이후 대책

●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 폭설시 고속도로 진입 통제기준 마련(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

◇ 고속국도 시행령 제5조의2(긴급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 신설

- 특정 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
-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cm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m 이상인 경우를 포함)
-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상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 고속도로 긴급상황 시 통행료 면제근거 신설(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 폭설시 고속도로 교통통제 사전예고 시행방안 마련

● 신속·정확성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Hot-Line 개설

-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 등 재난·도로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부,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간 Hot-Line 개설

● 정기적인 모의·도상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향상

■ 현장사진



〈차량이 고립된 경부고속도로〉



〈49.0cm 폭설을 기록한 대전지역〉



〈새마을호 탈선(대전)〉



〈폭설로 무너진 체육관(문경)〉

《사례 2》 보령화력 발전소 5호기 보수공사 중 비계붕괴

☐ 사고 개요

- 일 시 : 2012. 3. 27.(화) 10:51~14:15
- 장 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보일러실>
- 구 조 : 보일러실(높이 : 40 m)
- 원 인 : 안전사고(비계틀 붕괴사고)

< 개 요 >

◆ 상기 발전소 수리 중인 5호기 보일러실 내부에서 비계틀(높이 40m)이 무너져
작업 중인 인부 13명 중 13명 구조완료(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8명) 후 병원이송
※ 비계(飛階) :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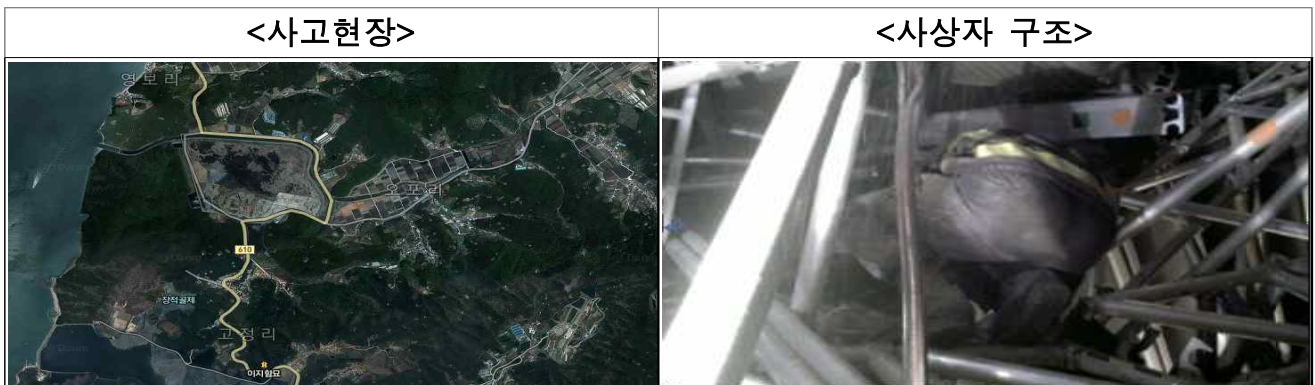
- 인명피해 : 작업인부 13명 중 13명 구조완료(사망1명, 중상4명, 경상8명)

☐ 동원소방력 : 80명, 장비 24대(헬기 2, 구조3, 구급8 등)

☐ 주요조치사항

- 보령, 홍성, 서천, 부여소방서 구조·구급대 등 소방력 현장 출동
- 유관기관 상황보고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충남소방본부장 현장 지휘
- 중앙119구조본부 2호 출동(헬기), 충남소방본부(헬기)

☐ 현장사진



《사례 3》 목포, 진도 근해 「대광號」 전복 사고 발생

☐ 사고 개요

- 일 시 : 2013. 3. 4(월) 12:38경
- 장 소 : 전남 진도 남방 12해리(34-03N 126-09E) 해상
- 원 인 : 원인미상으로 상기해상에서 대광號(9.77톤, 신안 임자선적 7명)가 전복된 채로 표류하고 있다며, 인근 항해중 이던 KATRINA號(7,170톤, 컨테이너선)가 신고

☐ 피해사항

- 재산피해 : 7명 전원 실종(한국인)
- 재산피해 : 선체 전복(선수·선미·조타실 3등분 절단 / 우현 충돌 흔)
※ 선박(1억1천3백) 및 선원(1억1천6백) 보험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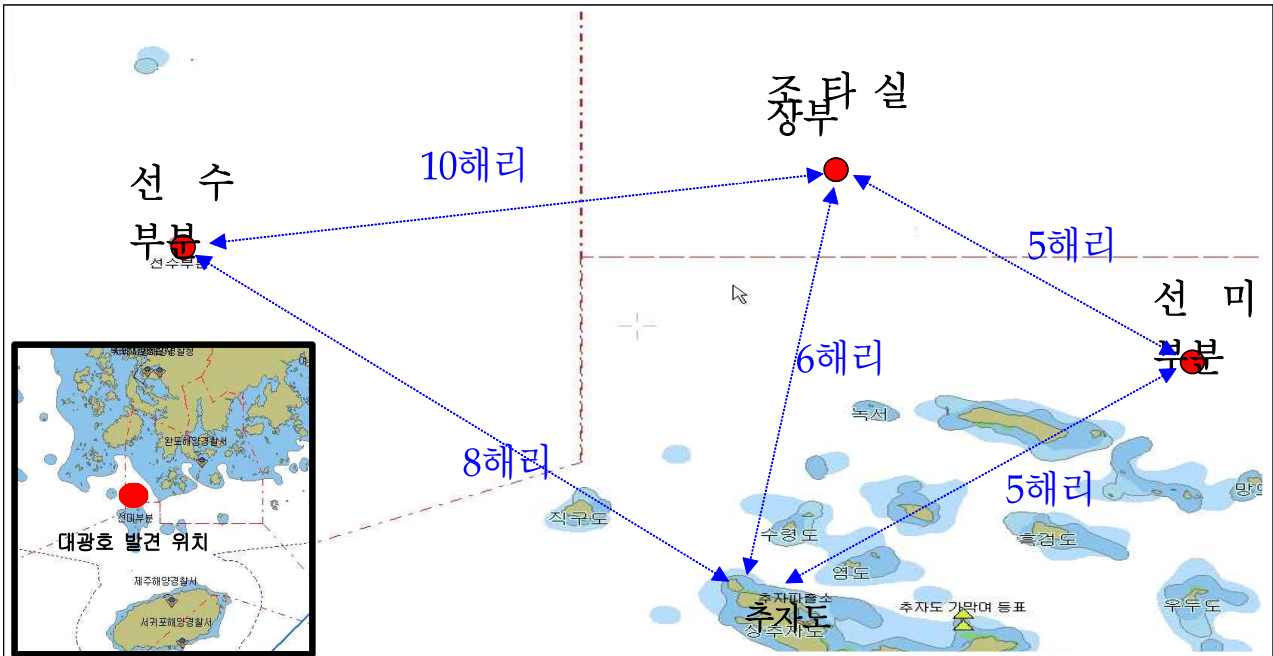
☐ 경비함정 및 기타동원 세력

- 인원·장비 : 함정 20척(해경 18, 해군 2)·항공기 5대, 특공대·122구조대·특수구조단
20명

☐ 주요 조치사항

- KATRINA號 신고 → 진도(VTS) →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접수
- 표류 전복선박(대광號) 발견, 대·내외 기관 보고·전파
- 헬기 사고해역 확인 요청 및 경비함정 305함 등 총 20척 출동지시
- 122구조대 전복선박 선체 수색
-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실시

■ 사고현장 사진



■ 선박 사진



6 재난관리 정보마당

■ 대설 대비 행동요령

가정에서는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운다.
- 낡은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직장에서는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한다.
- 출 · 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수단을 이용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그 직장 직원이 치운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농촌산간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으로 보호한다.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 비닐 찢기 작업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한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다.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낸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해안에서는

- 각종 선박 등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를 한다.
- 수산 증·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
-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 해안 접근을 막는다.
- 해안도로 운행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한다.

보행자는

-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간다.
-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

대설로 인한 차량 고립시 행동요령

-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기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한다.
-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한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킨다.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 차량 히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한다.
- 잠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자되 한 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는다.

강풍 대비 행동요령

평상시

-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낮은 집이나, 위험담장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임시시설,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하여는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한다.



풍랑 대비 행동요령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둔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풍랑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1.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2.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4.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풍랑경보가 예보된 경우

1.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2.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4.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박 및 보강한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항만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트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 화재 대비 안전행동요령

화재가 발생했나요?

1.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 (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2.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세요.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에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나요?

-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시다.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 ①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 ③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나갑니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 소화전 사용 요령 >

-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나요?

1.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니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니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습니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니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니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않습니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2.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시다.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맙시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지하상가에서는 화재 안전수칙을.....

-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합시다.
- 평소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시다.
-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전기배선을 하지 맙시다.
-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지 맙시다.
-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난·불연 내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 방화셔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합시다.
- **대형시장 건물 등**에서는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잘 관리합시다.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산불 예방 요령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ライター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는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않는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한 때

-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한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한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난다.
-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대피한다.
- 산불구역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수목이 강하게 타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때

- 불이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는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한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히 대피하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가족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예방한다.

산불 진화 참여 방법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삽, 톱, 갈고리 등)와 안전 장구(긴 팔 면직 옷, 안전모, 안전화)를 준비한다.
- 산불 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강한 젊은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때 현장대책본부의 안내를 받도록 한다.

※ 산불신고 : 119,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7 주요 언론보도 사항

I 2015년 02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이슈재난 관련 보도

02월 14일(토)	호남고속철, 4월 개통 앞두고... 217곳 지반 침하(KBS) 시운전이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 곳곳에서 지반 침하 발생 철도시설공단, 보강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어 운행에는 지장 없다고...
------------	--



자연재난 관련 보도

02월01일(일)	<p>작년 한반도 지진 51회...역대 4번째 5.1 규모도(연합뉴스)</p> <p>안전처, 작년 안전통계 공개...선박사고 줄었지만 세월호 영향 인명피해 ↑ 지진은 총 51건으로 2005년 이후 10년간의 연평균 발생빈도(52.9회)와 비슷 ※ 지난해 국민안전통계 110종 가운데 화재 119 구조구급 지진 해상 조난사고 안전사고 등 1일 공개</p>
02월01일(일)	<p>산림청, 빅데이터 활용 산불예측 정확도 대폭 개선(뉴스1)</p> <p>산불발생 예측 정확도를 74.2%에서 83.3%로 약 10%p 높였으며, 자료 처리시간도 3시간에서 50분 이내로 단축</p>
02월01일(일)	<p>국립산림과학원 “올봄 대형 산불 가능성 크다”(연합뉴스)</p> <p>산불위험 예측·분석센터 가동 결과, 올봄은 평년기온(10~14℃)보다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형산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p>
02월02일(월)	<p>미 북동부 기록적 폭설... 눈폭풍 엄습 7명 사망(뉴스1)</p> <p>보스턴시 적설량 87cm(역대 최고), 시카고·보스턴·뉴욕 인근 공항 약 2,900편 운항 취소, 학교 휴교 등</p>
02월05일(목)	<p>강원 영동 눈...가뭄 해갈 도움(YTN)</p> <p>지난주 최고 10cm의 눈이 내린데 이어 또다시 눈이 오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p>
02월09일(월)	<p>과테말라 화산폭발로 공항 폐쇄, 100여명 대피(YTN)</p> <p>푸에코 화산이 또다시 폭발, 아우로라 국제공항폐쇄, 최소 100여명 대피</p>
02월19일(목)	<p>경기지역 미세먼지 농도 여전...올 들어 3차례 주의보(연합뉴스)</p> <p>미세먼지의 1시간 평균 농도가 200$\mu\text{g}/\text{m}^3$를 넘을 경우 주의보 발령</p>
02월19일(목)	<p>20일 전국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귀경길 아침 안개 주의”(연합뉴스)</p> <p>일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귀성 차량은 안전에 주의</p>
02월19일(목)	<p>칠레 남부 화산 폭발 조짐...인근 도시에 경계령(연합뉴스)</p> <p>남부 비야리카 화산*의 폭발 대비 인근 4개 도시에 경계령 발령 * 수도 산티아고에서 775km 떨어졌으며 높이는 2천847m</p>
02월20일(금)	<p>“작년 해수면 온도 역대 최고”...기상이변 우려(연합뉴스)</p> <p>美 기상학자 악셀 팀만 교수, 작년 해수면은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온실가스와 비정상적으로 약해진 무역풍이 원인</p>
02월20일(금)	<p>日 북동부 연안서 6.3규모 강진...피해 없을 듯(YTN)</p> <p>20일, 일본 북동부 연안에서 6.3 규모의 강진이 발생, 피해는 없을 듯</p>
02월22일(일)	<p>美, 동부에 또 폭설과 한파...뉴잉글랜드에 15cm 또 쏟아져(뉴스1)</p> <p>미 국립기상청, 이번 주말 눈폭풍이 15cm의 적설량을 보일 예정이라고 예보 콜로라도주에는 주초에 약 60cm의 폭설이 예고되고 고속도로 구간도 폐쇄 예정</p>
02월23일(월)	<p>전국 황사특보... 5년 만에 최악 ‘겨울 황사’(연합뉴스)</p>



자연재난 관련 보도

이례적인 겨울 황사, 역대 4번째로 강한 수준, 서울의 미세먼지(PM10)가 1천44 $\mu\text{g}/\text{m}^3$ 까지 치솟아 겨울 황사로는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



사회재난 관련보도

02월01일(일)	러시아 최대 도서관서 큰 불...희귀사료 등 수백만권 불타(연합뉴스) 진압에는 총 25시간이 걸렸으며 화재의 원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 인명 피해 없어
02월02일(월)	경남 고성서 '개' AI 바이러스, "사람 전염 가능성 없어"(연합뉴스) 지난 23일 AI가 발병한 오리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에서 AI 항원 검출, 모두 살처분·매몰, AI로 죽은 오리를 개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
02월02일(월)	경기도, 판교사고 재발 방지...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연합뉴스) 경기도 관여(5백~3천명 미만)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수립·시행, 주최자는 행사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02월02일(월)	미국 60개 동맹국 위협하다...18일 워싱턴서 '테러와의 전쟁' 선포 (아시아투데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 IS동맹' 국가 모두 위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개최, 국제사회 단결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 예정
02월02일(월)	홍콩 독감 비상...1월만 독감사망자 81명(YTN) 지난 1월 한 달간 143명이 독감으로 입원하고, 이중 81명이 사망, 한 달 새 사망자수가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수(149명)의 절반 넘어
02월02일(월)	"과속하다 포트홀 사고 당했다면 지자체 책임없어"(YTN) 원 판결, "포트홀(도로 패임 현상)에 바퀴 빠지는 사고로 차량 파손되어도 과속 등 운전자 과실이 주원인이면 지자체 배상 책임 없다.
02월02일(월)	"매일 타는 버스 사고 위험 없다" 겨우 5%만 응답(매일경제) 버스 승차 중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위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31.3%
02월04일(수)	충북도 구제역 이동제한 속속 해제...발생농가 7곳 풀려(연합뉴스) 충북도, 도내 구제역 발생 농가 28곳 가운데 7곳, 이동제한 해제 조치* * 살처분 후 21일 지난 뒤에 정밀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없을 경우 시행
02월04일(수)	경기개발연구원, 도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조사결과 발표(연합뉴스) 조사대상 805곳 중 399곳(49.6%)이 '안전 및 방제장비 미구비'로 나타나
02월04일(수)	美 뉴욕, 열차-차량 충돌...7명 사망, 12명 중경상(뉴스1) 승객 650여명을 태운 통근열차가 건널목에서 사고, 차단기 오작동 가능성
02월04일(수)	대만 여객기 이륙 직후 하천에 추락...22명 사망, 21명 실종(연합뉴스) 운항개시 1년도 안 돼 사고 발생, 승객 58명 중 31명이 중국 국적, 탑승자 명단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02월05일(목)	재난상황 관제 확 넓어진다(서울경제) 안전처, 소방·해경 이어 4월부터 원전·철도·선박·항공까지 연결 확대 현재 18종의 상황관리시스템을 33종으로 늘리는 새로운 시스템 개통
02월05일(목)	아시아 항공 수요 급증하지만 안전수준은 제자리(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세계 항공여객 수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아시아 항공사들은 항공수요가 대부분 공급을 초과, 안전기준 확보 필요
02월06일(금)	서울시, 재난대응 '통합' 매뉴얼 만든다(뉴스1) 재난 유형별 55개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을 정의한 '통합 재난대응매뉴얼'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



사회재난 관련보도

02월06일(금)	대충 본뒤 “OK” ... 지자체 해빙기 재난 비상(문화일보) 인력부족 전수조사 못해, 장비열악, 육안점검에 그쳐, 등급 재조정 시급
02월06일(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연말까지(서울신문)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으로 올해 말까지 신청, 인과관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
02월07일(토)	서울에서 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첫 확진(YTN) 서울시, 중랑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 소독과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키로
02월07일(토)	홍콩서 독감 급속 확산... 울들어 134명 사망(연합뉴스) 금년도 홍콩에서 독감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207명 중 134명 사망, 지난해 전 체 사망자수 149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러
02월08일(일)	‘민족대이동’ 설연휴 앞, 구제역·AI 방역 초비상(머니투데이) 지난해 2700만명 이동...농식품부, ‘대국민담화’ 등 방역 동참 요청 계획
02월08일(일)	전국 사립대 절반, 교육시설 안전점검 참여 안해(연합뉴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겨울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 면 전국 사립대 365개 가운데 196개(53.7%)만 안전점검에 참여
02월08일(일)	北, 원산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연합뉴스) 8일 오후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발사, 군 당국은 무력 시위 차원으로 분석
02월10일(화)	홍대입구역 불나면 ‘1400명에 방독면 96개’(머니투데이) 홍대입구역 200m 환승구간 구호용품 전무, 비치된 방독면도 탈출구 반대방향 의 밀폐된 캐비닛에 보관돼 사용 곤란, 적정 매뉴얼 필요
02월10일(화)	미국 보스턴에 또 56cm 폭설... 도시 기능 마비(연합뉴스) 지난 2주 동안 내린 눈이 채 녹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폭설, 쌓인 눈 깊이는 94cm, 휴교·대중교통 중단 * 이번 겨울 194cm, 최근 30일 182cm
02월14일(토)	경찰, 영종대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추진(연합뉴스) 영종대교 상·하부도로에 단속카메라 설치 ※ 106중 추돌사고 관련 운영사(신공항하이웨이)와 안전시설물 대폭 보강 협의 등
02월14일(토)	서울시, 문화체육시설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실시(매일경제) 서울시·자치구 발주 문화체육시설 공사장 총 16곳 대상(2.17일까지) 공사장 지반침하, 구조물공사 이상 여부 등 ※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관련
02월15일(일)	국민안전처, ‘가짜 방화복’ 착용중지 통보(연합뉴스) 품질검사 완료 표시가 조작된 방화복 5천여 벌이 공급된 사실을 적발 문제 업체 2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납품받은 모든 방화복을 착용하지 말도록 일선 소방관서에 긴급 통보
02월17일(화)	‘의정부 화재’ 306보충대 임시숙소 운영 한달 연장 검토(연합뉴스) 의정부시, 오는 28일 까지인 임시 숙소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
02월17일(화)	‘106중 추돌 악몽 없도록’...영종대교 안전시설 대폭 보강(연합뉴스) 신공항하이웨이, 안개등 약 500개·대형 도로전광판 4개설치 예정
02월18일(수)	국무총리, ‘가짜 방화복은 범죄행위...“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겨라”(MBN)



사회재난 관련보도

	<p>종로소방서 방문, 가짜 방화복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길 것을 지시 ※ '13~'14년 납품 방화복 1만 9천여벌 중 5천 300여벌이 검사합격 날인이 없거나 가짜 날인</p>
02월19일(목)	<p>일찍 왔다간 한파... 한랭질환자 지난 겨울의 1.6배(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15일까지 한랭질환자는 모두 434명이며, 이중 12명이 사망 ※ 올겨울 한랭질환자 중에는 저체온증이 368명 84.8%로 가장 많고, 동상이 56명 12.9%</p>
02월19일(목)	<p>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아동학대 상담기능 강화된다(연합뉴스) 경찰청, 117센터를 아동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전화로 확대·운영할 계획</p>
02월19일(목)	<p>인천어린이집 사건 후 아동학대 800건 신고(연합뉴스)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1.16~2.15) 운영 결과, 117, 112신고센터에 830건 접수</p>
02월20일(금)	<p>구제역·AI 차단...축산업 허가 대상 확대(YTN)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키로 * 소 300㎡, 돼지 500㎡, 오리 800㎡ 이상 농가 / 전체 농가의 50.9%에 해당</p>
02월20일(금)	<p>스위스 취리히 인근 기차역에서 열차 충돌(연합뉴스) 스위스 취리히 북부에 있는 마을 리프츠에서 기차가 충돌해 최소 5명 이상이 다쳤으며 그 중 1명은 중상이고, 현재 사고원인은 조사중</p>
02월22일(일)	<p>지하철역 승강장 틈 발빠짐 사고 5년간 327건(연합뉴스) 2010~2014년 5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발빠짐 사고는 총 327건으로 연평균 65건 ※ 서울메트로(1~4호선)가 261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80% 차지 ※ 서울메트로는 120개 역 중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역이 99곳(83%)</p>
02월22일(일)	<p>'மிழ지 못할' 워싱턴DC 메트로...정전·연기 잇따라(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전동차 브레이크에서 발생한 연기가 역내를 가득 채우면서 대 피령 발령 전날 환승역인 랑팡플라자 역에서 정전 사고가 일어나 수백 명이 어둠 속에 갇혀</p>
02월23일(월)	<p>방글라 여객선 침몰 사망자 69명... 실종자수 집계 안돼(연합뉴스) 22일 파드마강에서 여객선이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하여 69명이 사망</p>
02월23일(화)	<p>국민안전처, 재난통신망 사업 구축·운영에 1조 7000억원 투입(연합뉴스) 재난안전통신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초안 공개 /구축사업비 9,241억원, 10년간 운영비 7,728억원 소요 / 경찰, 소방 등 8대 분야 330개 기관이 활용계획 ※ ('15년) 평창 등 동계올림픽지역 ('16년) 9개 시·도 ('17년 / 완료) 6대 광역시</p>
02월23일(화)	<p>재해·재난 발생시, 군 병력 장비 즉시 투입 방안 추진(재난포커스) 23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 대통령 보고서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시 관·군·경의 초기대응팀 통합 운용방안" 언급 합참 관계자는 "이 방안 확정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시에도 관련 기관의 요청없이 군 병력과 장비를 즉각 지원 할 수 있다"고 밝힘</p>
02월23일(화)	<p>LG유플러스 '스마트폰으로 재난 생중계'시스템 개발(연합뉴스)</p>



사회재난 관련보도

재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하거나 실시간 중계할 수 있는 LTE 기반 관제시스템으로 중앙정부, 경찰·병원 등이 실시간 공유 가능

※ 지방 오지에 네트워크 장비 설치시 중앙관제센터에서 LTE 중계로 현장상황 실시간 확인

02월23일(화) 미 통근열차, 차량과 충돌...28명 부상(YTN)

24일 23시경(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서 통근열차가 대형트레일러와 충돌, 열차 4량이 탈선하며 승객 28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

02월25일(수)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마련(뉴시스)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체험중심으로 개발

※ 7대 영역 : 생활·교통·폭력·신변·재난·직업 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응급처

02월25일(수) 서울119, 4분마다 출동...화재로 갇힌 사람 구조 최다(연합뉴스)

서울시119구조대가 지난해 4분마다 출동해 24분마다 인명을 구조

02월26일(목)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기술 공유회의 개최(연합뉴스)

대상 : 전국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 및 17개 해경안전서 방제실무 책임자

3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발 행 : 2015년 2월

발행처 :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장 홍경우 /담당관 잔재준 센터장 변수남 최정환 /담당 이정일)

전 화 : 02) 2100-0229

팩 스 : 02) 2100-4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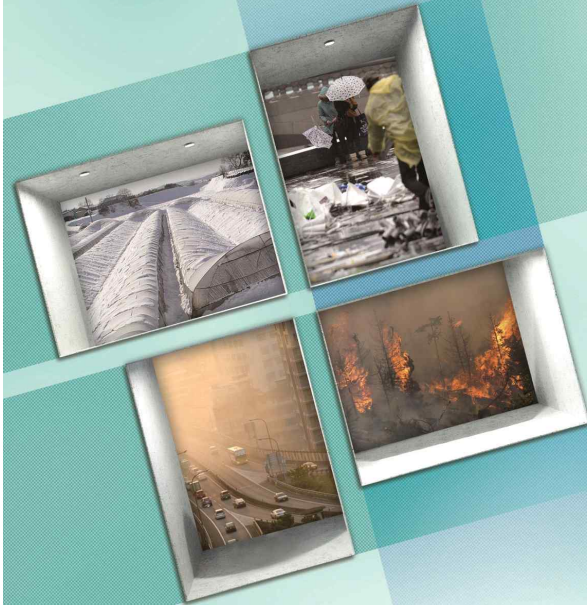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3호

www.mpss.go.kr

2015년 3월

재난안전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